

중산층 절반 “65세 넘어도 일할 것”

은퇴자금 부족해 재정적 압박
안정적 생활에 150만달러 필요
실제 평균은 6만6천달러 불과



중산층 52%는 은퇴준비 부족으로 65세가 넘어도 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중산층이 은퇴연령을 지나서도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은퇴연구센터(TCRS)가 28일 중산층 57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성인 중 52%는 65세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소득은 연소득 5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사이였다.

은퇴연령이 지나서도 일을 계속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 압박’이었다. 80%에 가까운 응

답자가 은퇴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보험업체 노스웨스턴 뮤추얼은 보고서를 통해 은퇴자들은 최소 150만 달러가 있어야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계좌의 평균 잔액

은 6만6000달러에 불과했다. 401(k)에 의존하는 많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거나 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 직장 연금에 납입을 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한 은퇴자금을 모으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

의 지적이다. 401(k)의 경우 자율적으로 저축금액을 설정하기 때문에 많은 가입자가 납입비율을 낮추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 패널티를 감수하고 401(k)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CRS의 조사에 따르면 401(k)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조기 인출을 해봤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30%를 훌쩍 넘었다.

또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이후의 생활이 이전보다 더 길어진 것도 은퇴자들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다. TCRS의 캐서린 콜린슨 최고경영자(CEO)는 “65세에 은퇴를 한다면 이후 평균 25년은 더 살아야

한다. 이는 곧 은퇴생활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60대 이후에도 일하는 사람의 비율이 무시 못 할 수준이 됐다. 퓨리서치센터는 최근 조사를 보면, 65세 이상 10명 중 2명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플로리다에 사는 77세 래리 게식은 CBS와 인터뷰를 통해 “70대 중반에도 매일 일을 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콜린슨 CEO는 “중산층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다니는 은퇴를 꿈꾸지만,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것은 점점 더 일반적인 것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기자

Ray Tour NY Ray Tour는 버스 여행이 아닙니다. **VIP 스페셜 여행**입니다.

최소 1인 최고 6인만 모시고 **맨해튼 시내투어, 니아가라 폭포 2박3일, 캐나다 5박6일** 투어를 합니다.
물론 **고객 맞춤 여행도 진행 합니다** | **요금은 인원수에 따라 조정 됩니다** | **4인 기준 1인 요금 | 1일 가이드팁 \$20**

레이 투어 고품격 뉴욕 관광 인기

‘맨해튼 시내 및 야경 VIP 투어’ 가장 인기 프로그램
편안한 7인승 미니밴으로 전문 가이드와 명소 관광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고품격 여행을 제공하는 ‘레이 투어(Ray Tour)’가 뉴욕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하며 감동의 추억을 만들 고객들을 모집한다.

레이 투어는 “저희 투어는 버스 투어가 아닌 개인화된 서비스와 전문 가이드가 함께하는 차별화된 여행을 제공한다”며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사로, 혼자 또는 연인·가족과 함께 특별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레이 투어는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하지만, 특히 ‘맨해튼 시내 및 야경 VIP 투어’는 가장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다.

레이 투어는 “뉴욕은 매일 특별한 도시로, VIP 시내 투어로 맨해튼 심장부를 경험해 볼 수 있

다”며 “센트럴파크, 타임스퀘어, 자유의 여신상 등 명소를 편안한 7인승 미니밴으로 관광하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원월드 전망대에서 멋진 경관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레이 투어는 “그라운드 제로와 첼시마켓, 하이라인 공원 등 다양한 명소를 둘러보며 뉴욕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며 “프라이빗한 차량으로 운행되는 이 투어는 각종 유람선과 전망대 입장료도 모두 포함돼 있어, 기억에 남는 ‘뉴욕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 지금 바로 예약해 특별한 여행을 시작할 것”을 권했다.

한편 레이 투어의 ‘맨해튼 시내 및 야경 VIP 투어’는 소요시간이 10시간으로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진행 ▶참가 인원은 1명·2명 또는 최대 6명까지

맞춤형 ▶한국어 전문 가이드 ▶출발 시간은 오전 8시에서 10시(계절별로 가변적·예약 필요·공항 픽업도 가능) ▶투어 차량은 7인승 미니밴(서버밴 또는 카니발) ▶어린이 카시트는 직접 준비하고, 1명당 1개 캐리어 지참은 가능하네, 투어 전에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레이 투어는 “맨해튼의 주요 랜드마크를 전문 가이드와 함께 편안한 차량으로 이동하며, 짧은 하루 동안 알차게 투어를 진행하고, 각 명소에 담긴 역사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하기에 이동 시간 내내 유익하며 지루하지 않다”며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예약 전 일정과 세부 사항을 꼭 확인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레이 투어 ▶전화: 201-577-1553(Raymond Lee) ▶이메일: Raytourney@gmail.com ▶홈페이지: www.raytourney.com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보어스헤드 햄 공장 위생상태 엉망

바퀴벌레, 파리, 곰팡이 발견
CDC, 리스테리아로 9명 사망

리스테리아 감염으로 사망자가 9명으로 늘어난 보어스헤드 제조공장에서 벌레와 곰팡이가 발견됐다.

연방농무부(USDA)의 위생 및 안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어스헤드의 버지니아주 재럿 공장의 위생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USDA 조사관들은 2023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2일까지 공장 내 직원 화장실 세면대와 냉각고, 훈제시설 등에서 곰팡이를 발견했다. 이뿐만 아니라 피클통, 고기 저장시설 포함 내부 시설에서 바퀴벌레와 파리 등의 해충과 공장 바닥에 핏자국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USDA는 식품 위생 위반 등 총 69건을 적발했다.

업체 측은 “식품 품질 및 안전 관련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럿 공장의 모든 작업을 중단했다”며 “시설 소독과 위생 관련 직원 재교육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28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5월 발병된 보어스헤드 식품에서 발생한 리스테리아균으로 인한 사망자



가 총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병원 입원을 호소할 정도의 증상을 보인 이들도 14명이 늘어 57명이다.

CDC는 증상을 보이는 데까지 최대 10주가량 소요될 수 있어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추적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CDC는 제품 포장지 안의 제조번호 ‘EST. 12612’ 또는 ‘P-12612’가 쓰인 상품(사진)이 리콜 대상이라며 즉각 폐기하거나 반품하라고 권고했다.

서재선 기자 suh.jaesun@koreadaily.com

(718) 361-7700

시간은 없고, 광고는 해야겠고...

중앙일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업사원 00명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큰돈 벌고 싶습니까? 지금 전화주세요.

516.668.0336 (Kevin)

Con Edison & PSEG Rebate Program으로
현재 사용하고 계신 구형 일반 전구(형광등, 백열전구, 수은등)을
최신 LED전구 제품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교회/오피스/도소매점/식당/슈퍼마켓/델리/공장/호텔 등

sky lite Sky Lite Inc
1501 132nd St, College Point, NY 11356

www.SKYLITEUSA.com